

## CLEAN UP SUNBO

### 처음 마음가짐 그대로, 歸於初心 (귀어초심)

## " 2012년 사무식 "

2012년 1월 2일 본사 및 각 공장단위로 2012년 임진년 새해의 힘찬 출발을 위한 사무식이 열렸다.

이번 사무식은 3대중점 추진 결의문 낭독, 대표이사 신년사, 명품모듈 생산실천 결의문 낭독, 사업다각화 결의문 낭독 그리고, 임원들의 합심하에 2012년 경영슬로건 제창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2012년 해양전문 초우량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여 목표달성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 힘찬 출발! 꿈과 희망의 2012 SUNBO Family 신년사



사랑하는 선보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희망찬 임진년 새해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과 사랑, 축복이 함께하는 한해가 되고, 뜻하는 모든 소망 이루어기를 바랍니다.

각 사업장은 안전사고 없는 건강한 한 해,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며 단결하여 사업목표를 달성하는 축복받는 한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임진년은 60년 만에 찾아오는 '여의주를 가진 흑룡의 해'라고 합니다. 용은 비바람의 조화를 부리는 상상의 동물로 동, 서양에 널리 알려져 있으며 성스러운 기운을 가지고 있고 특히 이번 임진년 흑룡의 해는 물과 함께 하늘로 용이 승천해 활개를 치듯이 모든 일이 순조롭고, 만사가 풍족해 질 수 있는 해라고 합니다.

올해 신년화두는 歸於初心(귀어초심)입니다. 선보가족 모두가 항상 처음 마음가짐으로 서로협력하고 존중하고 단결하여 최선을 다한다면 "명품모듈"생산과 "제 3 창업"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리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선보가족 여러분!  
우리 선보는 지난 창립25주년을 맞이하여 제 3 창업을 선포 하였습니다.

제 3 창업의 성공과 조선 불황 극복을 위해 금년도 매출목표는 조선부분 2012 억원, 해양부분 240억원으로 정했습니다. 수주가 하락, 신제품 개발과 해양 플랜트 사업 부진 등 제반 경영환경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불황을 기회로 승화시켜 성공적인 제 3 창업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달성해야 할 목표입니다.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선보의 생존과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항상 최고라는 자만심과 현실에 안주했던 무사안일의 사고는 지금 이 순간 모두 벗어 던져버리고 Zero Base에서 혁신적인 사고와 열정, 도전정신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한 위대한 선보인의 명예를 걸고 사업다각화와 명품모듈 생산을 위해 제 3 창업을 반드시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선보가족 여러분!  
위기와 시련을 극복하고 재도약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제 3 창업의 필요성과 실천해야 할 주요사항에 대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 3 창업" 성공을 위해  
**첫째, "명품모듈"을 생산하여야 합니다.**

Module Unit은 선보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의 경쟁사는 우리보다 경쟁력이 앞서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납기, A/S 문제로 고객은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 Unit 업계의 영원한 최강자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나가기 위해 우리는 경쟁력을 갖춘 명품 Module Unit을 생산하여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 경쟁우위를 점하여 고객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조직별로 수립한 계획을 최단기간 내에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쾌적한 작업환경조성과 "무재해 작업장 실현"입니다.**

안전/보건 대책 실천과 기존제품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설계, 생산오작 및 A/S Zero화 실천 및 자재보급율 100% 목표는 반드시 달성해야 합니다.

책임조직별 실천항목에 대한 실행계획은 반드시 실천하고 유지 관리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말과 구호에 끝나거나 처음 시작은 거창하나 끝은 별 볼일 없이 끝나버리는 그런 대책과 실행계획이 많았습니다.

귀어초심으로 목표하고 계획된 일은 반드시 달성하고 실천 해 나갑시다.

**셋째, "사업 다각화"입니다.**

사업 다각화는 생존과 도약을 위한 필수입니다. 그 첫 번째가 해양플랜트 사업 활성화입니다. 3년 전부터 준비해왔으나 우리는 영업, 설계, 생산 등 모든 분야에서 후발주자로 극복하고 넘어야 할 산이 많이 있습니다.

SHWE 프로젝트와 비올리아 프로젝트에서 경험하고 있듯이 시장 진입장벽은 높고 우리의 인지도는 낮아 수주가 어렵고 막상 수주를 하더라도 조선보다 높은 수준의 공정관리, 문서관리, 안전관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언어 소통문제에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온 방식과 태도로는 뛰어넘기가 불가능하며 성공적인 시장진입과 정착을 위해서는 선보가족 모두의 관심과 열정으로 하나 하나 극복해나가 해양플랜트 부분의 강자의 자리에 올라야 합니다.

그 두 번째가 신제품개발입니다. 지금 개발진행 중인 Item이 여러 건 있습니다.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고 귀어초심으로 최선을 다한다면 반드시 성공하리라 믿습니다. 개발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투입됩니다.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앞서 언급 했듯이 우리는 기존제품에 대해 기필코 Loss와 실패비용을 Zero화 시키고 초 원가 명품모듈을 생산해야만 합니다.

그 세 번째는 사업다각화를 위해 시장조사중인 Item과 MOU 체결단계에 있는 Item이 있습니다. 선보가족 여러분은 사업다각화 지원을 위해 각자 맡은 분야는 내가 사장이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선보가족 여러분!

우리 선보인은 불황 앞에서 움추러들거나 후퇴하지 않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미래를 위해 도전하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33,000평의 감천공장을 비롯하여 8개의 공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보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인프라는 구축되어 있으며 미래에 대한 도전은 반드시 성공 할 수 있다는 굳은 신념과 의지로 우리는 반드시 위기를 기회로 재창출 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 언급했듯이 우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위대한 선보인입니다. 정해진 것은 반드시 지키고 실천하여 우리 모두 풍요롭고 풍성한 성과를 거두어 "보다 나은 삶의 가치를 구현하고 더 큰 행복을 추구하는 기업" 건설을 위해 우리 모두 한 마음 하나 되어 무량한 합성, 박수와 함께 꿈과 희망의 닻을 올리고 우리 다함께 한마음 하나 되어 임진년의 힘찬 항해를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1월 2일  
SUNBO Family 총괄 대표이사 **최 음식**



# 2012 임원진 신년사

## 우리 승자가 됩시다.



김강수

경영고문

선보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느덧 선보가족이 된지 1년이 되고 새해가

되었습니다. 자주 현장에서 뵙지 못하고 지면으로 뵙는 것 같아 죄송한 마음 뿐입니다.

조선 관련업에 종사한지 거의 40년이 되어 갑니다. 그 동안 조선산업은 어느 한 해 어렵지 않고 이제는 호황이니 마음껏 편해 보자한 적이 없었습니다. 선보도 그런 것 같습니다. 작년은 그전 해 보다 어려웠고 그전 해는 그 전전 해보다 어려웠고 물론 금년은 작년보다 더 어려운 때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선가가 올랐을 때나 호황이거나 불황하고 저희에게 주어지는 계약 단가는 항상 매년 줄어들어 왔으며, 작년과 금년은 더욱 혹독한 것이 해운업과 조선업의 전

대 미문의 불황으로 조선소들의 수익성이 대폭 나빠지면서 저희와 같은 기자재 업체들의 동반 희생이 강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물의 세계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처한 환경에서도 승자만이 생존할 수 있습니다. 일등만이 살아남고 그들이 배를 채워야 만 2등, 3등이 먹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열악한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올 우리의 경영목표인 매출 2012억, 수주 2300억 (조선부문)을 달성 하는 것은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노력 없이는 힘들 것 입니다. 끊임없이 매년 낮아지는 계약 단가는 우리의 혁신활동으로 얻어지는 설계 품질 향상, 생산

성 향상 그리고, 원가 절감 등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단순히 더 많이 더 일찍 출근하여 더 늦게 까지 일하는 것으로는 어렵습니다. 효율적이고 창조적이며 자발적인 혁신 활동 이어야 합니다. 가슴에서 우리나라의 주인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승자가 되어야 합니다.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강한 승자는 남고 약한 패자는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올 한해 가족과 함께 건강하시고 행복한 생활을 하시기를 기도 드리겠습니다.

경영고문 김강수

## 조선 불황을 기회로 삼아 새로운 도약을 시작 합시다.



최상식

부사장

희망과 기회의 임진년 새해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올해는 사업 안정과 재 도약 발판의 기반을 구축하는 축복받는 기회의 한 해가 되기를 소망 합니다. 또한, 세계경기 침체와 조선불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승화시켜 “보다 나은 삶의 가치를 구현하고 더 큰 행복을 추구하는 기업” 건설을 위한 “Vision 2015” 시작 원년 입니다.

이를 위하여 SUNBO Family 총괄 대표님께서는 ‘Vision 2015’ 원년 신년화두 ‘歸於初心(귀어초심)’을 내려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조직 별로 조직원과 합의 하여 결정한 사업목표 달성

을 위해 항상 처음 마음가짐으로 조직원과 조직 간 서로 협력하고 존중하고 단결하여 최선을 다한다면 목표는 기필코 달성할 수 있다는 믿음과 신념으로 내려주시는 신년 화두 입니다.

경기 불황으로 조선기자재 업체는 모두 긴축 경영과 함께 신규투자를 중단 하였으나, 우리 회사는 위기를 기회로 승화시켜 새로운 도약을 위해 창사 이래 최대규모의 투자를 결정하여 실행 중에 있습니다.

歸於初心(귀어초심)으로 사업목표달성을 위해 우리가 정한 결의문과 선보인의 10계명을 실천한다면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장 조성으로 무재해

달성, 명품모듈 생산, 해양 플랜트 사업 안정은 물론 우리 미래를 보장 받을 수 있는 ‘Vision 2015’ 기반을 조성 할 수 있으리라 확신 합니다. 우리 모두의 꿈과 희망을 이루기 위해 열정을 다한 최선으로 안전 작업장 조성, 명품 모듈 생산과 해양 플랜트 사업 활성화를 위해 힘차게 출발하여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임진년을 위해 힘차게 첫발을 내딛습니다.

선보가족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사랑과 희망이 가득한 축복 받는 건강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부사장 최상식

## 단합된 힘으로 목표를 달성하자 !



진병석

전무이사

사랑하는 선보 가족 여러분, 2012년 임진년 새해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안전사고 없는 건강한 한 해, 전 선보 가족이 서로 협력하고 하나되어 2012년 계획한 모든 목표를 달성하는 보람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2011년은 당사 주력 제품인 선박 기자재, 유니트 시장의 물량감소를 대비한 신성장동력으로써의 해양, 플랜트사업에 진입하기 위한 신 사업 기초체력을 다지는데 역점을 두고 부지매입, 조직구성 및 시스템 구축 등에 노력을 기울인 바 있습니다. 따라서, 2012년 새해에는 지난 2011년 투자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가지고 실행하는 한 해가 되어야겠습니다.

첫째, 무재해를 실현하는 사업장을 만들어

야겠습니다. 선보 가족 모두가 즐거운 마음으로 회사에 출근하고 안전작업 규정을 준수하여 재해 없는 한 해가 되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둘째, 견적 정확도를 높이는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견적 정확도는 수주능력 제고 및 공사 완료 후 정산업무를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차후 공사 견적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셋째, 설계 절점관리 능력을 향상시켜야 하겠습니다. 설계 절점관리는 업무별 적절한 시간을 제공함으로써 제품의 품질과 납기를 준수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넷째, 품질에 대한 선주 신뢰도를 향상시켜야

하겠습니다. 자체 품질검사 업무를 강화하여 선주 검사 전 사전 검사를 통해 검사합격률을 향상시켜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미래의 선보 가족들의 먹거리 마련을 위한 회사의 과감한 투자로 해양, 플랜트 시장에 진입한 만큼 선보 가족의 단합된 힘을 바탕으로 고객이 요구하는 품질과 납기를 준수하여 고객이 영업을 창출하는 명실상부한 선보 가족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합니다.

다시 한번 선보 가족들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사업부 전무이사 진병석



정호경

상무이사

2012년 새해를 맞이하여 선보가족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다사다난했던 2011년은 힘든 한 해였지만 2012, 2013년은 더욱 더 힘든 고비가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속에서도 원칙을 지키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선보

인은 더욱 더 앞으로 전진 할 것으로 믿습니다.

모두들 업무에 바쁘시지만 공장간 팀간 부서간 더욱 더 소통을 강화하여 무결점 제품을 생산하여 진정한 명품모듈을 반드시 달성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실행에 옮기면 이루지 못한 목표는 반드시

달성할 것입니다.

2012년은 다시 한번 힘차게 도약하면서 우리의 꿈을 반드시 실행 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생산담당 상무이사 정호경



최홍렬

상무이사

선보가족 여러분 2012년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 합니다.

지난 2011년은 조선 시장의 계속된 불황으로 수주목표와 매출목표 달성에는 못 미쳤지만, 선보가족 모두의 노력과 열정으로 2010년도 보다 나은 실적을 기록 하였습니다. 하오나, 2012년은 2011년 보다 더 어려

운 한 해가 예상 됩니다.

여러분도 여러 보도를 통하여 익히 아시다시피 유럽 여러나라의 위기가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우리가 납품하는 국내 조선사들은 지난 8월 이후 수주가 거의 없는 실정이고, 해운시황도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영업부문의 모두가 혼연 일체

가 되어 이런 대외적인 위기를 극복하여 위기를 기회로 만들 것 입니다.

일은 "즉시한다, 반드시 한다, 될때까지 한다" 우리모두 파이팅을 외치며 힘차게 임진년 한 해를 달려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설계영업 상무이사 최홍렬

# 2012 임원진 신년사



상무이사 **장 두 생**

임진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과 화목으로 가정이 화평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계경제의 어려움과 조선시황의 난조에도 불구하고 선보는 작년 매출이 전년도 대비 증가하는 저력을 보였으며, 어려움이 예상되었던 해양프로젝트인 SHWE 의 MEG

Regeneration Packages 와 Produced Water Treatment Package를 갖은 설계 및 현장변경 등을 극복하고 품질과 납기를 맞추어 현대중공업에 납품함으로써 고객을 감동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정부/지경부는 기술경쟁력 확보, 글로벌 마케팅 능력 극대화, 지원 인프라 확충 등을 내세워 해양플랜트기자재 국산화율을 높이겠다는 방침입니다. 해양사업부는 2015년 매출 2,300억원을 위하여 올해는 수주 615억원 매출 240억원을 목표로 하여, 프로젝트 관리, 설계, 구매, 품질 및 환경/안전/보건등의 내부 수행인력 확충이 요구됩니다. 특히 금년은 CLOV 프로젝트의 SRU/UF PACKAGES 와 DEOXYGENATION PACKAGE, ELECTROCHLORINATION UNIT 등 제작 업무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내부 수행 조직을 강화하여 품질과 납기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설계능력이 없어서 제작하청으로 시작하지만 4, 5년 후에는 설계능력을 확보한 해양플랜트 기자재 제작 공급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금년에도 IFS를 포함한 외국 설계회사와의 합작/제휴를 시도/추진 할 계획은 바른 방향으로 보입니다. 작년 연말에는 부산시장으로 부터 해양기자재 산업에 기여한 공로로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내적으로는 어렵지만 외부에서 볼 때는 선보만큼 하고 있는 회사가 많지 않은 걸로 평가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면, 해양기자재를 할 수 있는 업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은 보상이 따를 것으로 확신합니다. 제 3의 창업에 발맞추어 명품 모듈 제작 및 2015년 당찬 목표 달성을 위하여서는 사업을 다변화하고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며, 합작/제휴를 통하여

기술력과 경쟁력을 확보하는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안주하려는 구습에서 벗어나 스스로 변해야 한다는 명제를 되뇌이며, 의식 혁신을 통한 변화 추구를 위하여 8대 신조로 각오를 다져봅니다.

1. 나는 적극적이다.
2. 나는 합리적이다.
3. 나는 부지런하다.
4. 나는 끈기가 있다.
5. 나는 목표가 있다.
6. 나는 나의 능력을 믿는다.
7. 나는 나의 일이 자랑스롭다.
8. 나는 나의 일로서 고객을 만족시키고 조국에 기여한다.

해양사업부 상무이사 장두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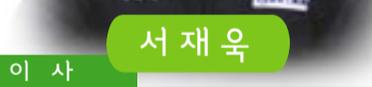
이 사 **강 보 영**

2012년 임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용기와 비상, 희망을 상징하는 용처럼 올해는 흑룡의 힘찬 기상이 선보가족 여러분의 가정에 넘쳐나길 기원합니다. 작년 한해 저성장, 고물가 등 대내외적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회사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앞장서서 일해 온 여러분이 흘린 땀과 노력은 더 큰 결실을 만들어 가기 위한 토대가 되었을 것이라 확신하며 그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2012년에도 세계 경제 침체 여파

로 선박 발주가 크게 줄면서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유럽 주요국들의 국제 만기일이 도래하기 때문에 신규 선박 발주등에서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변화와 위기의 소용돌이 한 가운데서 이와 맞서 싸워야만 하는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책임은 우리의 어깨를 더욱 강하게 눌러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지혜롭게 대처한다면 우리에게 밝은 미래와 희망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변화는 시간이 지날수록 범위가 더 넓어지고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작은 것에도 내가 먼저 변해야 주변이 바뀌고 회사도 바뀔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의 잠재력을 최대한 이끌어 내어야겠습니다. 다시 한번 선보가족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구평공장 이사 강보영



이 사 **서 재 옥**

‘세월이 참 빠르게 흘러간다’ 요즘은 문득 이런 생각을 자주하게 되는데 작년 한 해도 우리 선보 가족들 모두가 열심히 한 해를 보낸 것 같습니다. 요즘 경제도 어렵고, 회사도 어렵고, 생활도 어렵다고 많은 사람들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어 합니다. 작년 사외 초청 감사 분이 하신 말씀이 기억남

다. ‘인생 살아가는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힘들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항상 불만과 짜증 속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기왕에 하는 일 즐겁게 하고 남이 시켜서 하기 보다는 먼저 나서서 일을 처리하다 보면 내 마음도 편해지고 동료들도 즐거워하지 않을까요? 사실 저도 실천을 못하고 있지만 기

왕에 하는 일 즐기면서 하자고 마음을 다잡아 봅니다. 2012년 우리 선보가족에게 회사와 가정에서 새로운 일들과 도전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스트레스와 짜증 속에서 벗어나 즐거운 마음, 행복한 마음으로 임진년 새해를 열어 가시고 흑룡의 기운으로 선보가족 모두가 하늘로 높이 날아 오르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경영지원부문 이사 서재옥



이 사 **김 청 옥**

2012년 임진년을 맞이하여 선보 가족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만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2012년의 조선 영업환경은 여전히 그 어둡고 기나긴 터널의 끝은 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양/육상플랜트 산업이 제 2의 선보를 만들기 위한 든든한 주춧돌이 될 확신으로 시설 및 인력 투자를 계속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와 기회의 2012년은 회사의 중장기 성장방향을 재점검하고, 전진할 수 있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금년 아래의 사황에 대해 중점 추진코자 합니다. 첫째, 수주 구조의 변화입니다. 불확실한 현재 조선

unit에 당사의 매출이 99%가 유지되고 있고, 이에 따른 우리 성장 전략 또한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2012년 12월 기준 잔여 수주의 20%이상이 플랜트 제품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둘째, 사내 생산 역량의 변화입니다. 현재의 piping 조립 위주의 생산에서 사내 구조, piping, 전/계장력 사내 처리 및 역량확보를 통한 경쟁력 확보입니다. 셋째, 엔지니어링 역량의 혁신입니다. 현재 육/해양 고객의 요구는 엔지니어링은 급속도로 우리가 처리 불가능한 시스템 및 기능까지

책임질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 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우리가 처리 못하는 부분은 외국 선진 업체와의 협력을 통해서라도 우위의 엔지니어링 역량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당사의 엔지니어링에 대한 역량 강화를 끈임없이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현재의 어려움이 우리의 밝고 희망찬 새해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2012년 모든 가족들과 파이팅 외치며 힘차게 출발합시다. 감사합니다.

해양사업부문 이사 김청옥



이 사 **임 영 삼**

희망의 2012년 임진년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60년 만에 찾아오는 흑룡의 해가 되며, 오랫동안 물속에 잠겨있던 용이 승천하는 흑룡의 해입니다. 올해는 신문지상이나 마스크를 통해 조성경기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돌이켜보면 2011년은 우리에게 많은 반성과 성찰을 느끼게 해준 한 해였으며,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착잡합니다. 2012년 국내외 환경이 어두운 조선업 전망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선보

임직원들이 일치 단결하여 노력한다면 우리의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거라 믿습니다. 서로의 얼굴을 보며, 할 수 있다는 열정과 자신감을 가지고 혼연일체가 되어 확신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해라 생각합니다. ‘열’자는 정신, 마음의 영혼이라 생각합니다. “굴”은 통로라는 뜻입니다. 영혼을 찾아가는 모습이 얼굴입니다. 통로를 따라 사람의 인품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얼굴 각인 6초, 근육 80개, 지을 수 있는 표정은 700

개라고 합니다. 마음가짐을 다지고 활발히 밝게 생활하면 분명 웃는 한 해가 될 것 입니다. 올 한 해 행복한 가정, 웃을 수 있는 직장, 동료들과 서로 돕고, 나보다 동료를 위해 먼저 앞장서는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내가 변하고 작은 것에도 내가 앞장서면 주변이 바뀌고 회사도 바뀔 것이고 마음도 생각도 변화 할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힘찬 2012년을 위해 회이팅!

선보하이텍 이사 임영삼

## 2011년 한해를 정리하며...

2011년을 마무리하는 종무식이 12월 30일 사내교육장에서 열렸다. 최금식 대표이사는 이날 종무식에서 “올해는 조선 경기 및 전 세계적 경기침체의 한 해 였다. 그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매출 목표 달성을 위하여 노력해 준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라고 격려하였다. 한편 종무식에서는 한 해를 정리하며 우리 회사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한 임직원에게 대한 시상도 함께 진행되었다.



### 2011년 연말 포상자 명단

#### 경영성과대상-임원부문

구평공장 이사 강보영

#### 경영성과대상-부서장/팀장부문

설계부문 과장 최우호

지원부문 차장 최경호

공장부문 과장 신성인

#### 경영성과대상-단체부문 대상

설계2팀

경영지원팀

품질보증팀

구평공장

#### 경영성과대상-단체부문 우수상

영도공장

#### 경영성과대상-반생산부문 대상(개인)

1공장 기원 김동섭

#### 경영성과대상-반생산부문 우수상(개인)

2공장 생산선임 팀장 장상권

#### 경영성과대상-반생산부문 대상(단체)

1공장 자재지원반

#### 경영성과대상-반생산부문 우수상(단체)

2공장 조립반

#### 특별상-개발상

기술연구소 부장 장호길

#### 특별상-공로상

감천공장 차장 김건우

#### 해양공사 성공 공로상

구평공장 서경플랜트

#### 개선활동, 5S 실천우수 협력사상

1공장 삼진공업

2공장 우성ENG

구평공장 평창산업

영도공장 이견엔텍

#### 부산상공회의소 회장표창

감천공장 차장 이동준

설계5팀 부장 김황중

#### 산업인력공단 표창

3공장 생산팀장 강동주

영도공장 생산주임 최성호

#### 부산시장 표창

기술연구소 상무 장두생

#### 모범상

경영지원부 과장 안정빈

2공장 대리 배승용

영도공장 사원 이정훈

3공장 생산주임 김승우

영암공장 생산선임팀장 정봉주

#### 우수사원상

품질보증부 과장 박용갑

품질보증부 계장 이현수

자재조달팀 과장 이수원

자재조달팀 과장 손정락

영업1팀 대리 문해기

설계1팀 사원 이종진

설계2팀 계장 이재광

설계3팀 사원 강영중

설계4팀 대리 박황수

설계5팀 계장 이석형

설계6팀 사원 홍성원

기술연구소 사원 옥승민

구평공장 과장 윤용남

영도공장 대리 성장훈

영암공장 대리 이충훈

군산공장 계장 윤경철

1공장 생산주임 이창호

1공장 생산선임팀장 엄익상

1공장 생산주임 김정민

1공장 A/S팀장 노재태

1공장 생산주임 김형원

2공장 기능직사원 최봉순

3공장 생산주임 김중기

영암공장 생산주임 김효희

1공장 로프

군산공장 로히터

### Inside SUNBO 회사소식



## 우리 회사 일터혁신 우수기업 인증 계층별 소통체계 및 노사화합에 힘써

우리 회사는 지난 30일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노사발전재단이 주관하는 2011년 ‘일터혁신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았다.

‘일터혁신 우수기업 인증’은 정부가 혁신활동 및 성과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 인증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노사 자율적 혁신을 통한 기업 경쟁력과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우리회사는 노사 화합을 통한 공정시간 단축, 설계 혁신을 통한 자재비 절감, 가족 행사 및 복지제도 활성화를 통한 가족친화기업선정 및 출산친화기업선정, 2009년 수출 5000만불탑 수상, 2010년 한국 생산성 대통령 표창 수상, ISO14001(환경), OHSAS18001(안전) 획득 등 많은 일터 혁신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가족 문화생활 지원, 가족 초청 간담회 등 노사 상생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시행, 계층별

소통체계구축 및 직원 역량 강화를 통한 무분규 노사 평화를 실현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역 복지관 지원, 사회복지시설 지원, 소외계층 지원, 지속적인 지역구 환경행사를 통하여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나눔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이번 일터혁신 우수기업으로 인정 받음에 따라 우리 회사는 향후 3년 동안 관련 문구 및 로고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례집 발간, 동영상 제작, 각종 정부 포상 시가산점이 부여되는 등의 인센티브도 받게 된다.

이번 수상을 위하여 노력 하였던 김종신 안전환경총무 대리는 “이번 ‘일터혁신 우수기업’ 인증을 계기로 명실상부한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해 나가고, 임직원들의 삶의 질을 높이며 가족친화기업을 계속 승화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혁신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 Inside SUNBO 회사소식

## 성금모금행사

불우이웃돕기 2,500만원,  
직원돕기 1,000여만원 모금



우리 회사 임직원들은 지난달 12일부터 약 3주간 성금 모금 행사를 통하여 올해 사내직원들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에 동참해 주변을 돌아보고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관내 불우이웃 돕기와 사내 직원 돕기 행사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1차로 본사 1,000만원, 유니텍 1,000만원, 하이텍 500만원 등 총 2,500만원의 성금이 모여 관내 불우 이웃 돕기 시설에 전달 되었으며, 2차로 본사 300여만원, 그 외 전사에서 200여만원, 최금식대표 100여만원, 복지기금 500여만원 등 총 1,100여만원 상당의 성금을 모아 지난 1월3일 우리회사 내에서 근무하는 직원 3명과 외주협력업체 3명에게 1인당 100~300만원의 성금을 전달 하였다.

## 신년화두모음

**2010년 虎視牛步**  
호랑이의 눈으로 목표를 주시하고 목표를 향해 지칠 줄 모르는 꾸준함으로 신중하게 나아가 반드시 목표를 달성하자.

**2011년 有所作為**  
해야 할 일을 열심히 준비하여 뜻을 이룬다는 말로 개인과 조직에 주어진 목표에 대해 치밀한 계획과 실천방법을 세워 목표를 기필코 초과 달성하자.

**2012년**  
**歸於初心**  
귀어조심

어려운 일을 겪게되면 사람들이 항상 하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자" 초심은 무슨 일을 시작할 때 처음 품은 마음이며 다짐입니다.

사람이든 조직이든 초심을 잃을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되고, 무엇을 이루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위험할 때이며, 그때 우리가 점검하여야 할 마음이 바로 초심입니다.

인생의 위기는 초심을 잃을 때 찾아옵니다. 임진년 새해에는 여러분의 초심을 다시 한번 더 새롭게 다지며 언제나 변함없는 자세로 임하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 2011 수상 및 인증

올 한해 어려운 경기 속에서도 우리 모두의 노력을 모아 목표달성에 총력을 기울였으며 이는 각종 인증, 수상 등으로 그 결실을 이루었다.

## 1. 해양레저장비산업 중소기업 선연구원과 협약식 가져

1월 18일 우리 회사는 중소기업 선연구원과 해양레저장비산업 인력양성 사업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으로 중소기업 선연구원과 부산 해양레저장비산업 인력양성사업 주최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해양레저장비산업과 관련하여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중소기업, 조선기자재, 부품소재, 금융, 보험, 전시 등 관련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조선/해양관련 모듈제작 업체로서는 우리 회사가 유일하게 선정되었다.

이번 협약은 향후 해양레저사업 진출의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2. 우리 회사 '2011년 전략산업 선도기업' 인증서 갱신



3월 29일 부산시로부터 미래 부산의 경제성장을 견인할 경쟁력 있는 중견기업을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육성키 위한 2011년 선도기업에 재 선정되어 인증서를 갱신 하였다.

우리 회사는 해양산업, 기계부품소재산업, 관광산업, 컨벤션산업, 영상산업 등 총 10개의 전략사업 부문 가운데 기계부품소재산업부문에 선정되어 앞으로 중소기업 육성·운전자금금리 우대 지원 및 특허기술 양산화 지원, 브랜드개발 및 권리화 지원 등의 혜택을 받게 되었다.

## 3. 특성화고 취업지원 협약식

우리 회사는 3월 24일 부산시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특성화고 취업활성화를 위한 산.학.관 취업지원 협약식'에 협약하고 지역단위 취업지원 네트워크 구축에 동참하기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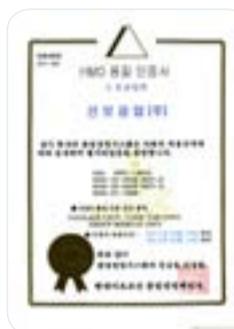
이날 협약식에는 우리 회사 뿐만 아니라 부산시를 비롯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울중소기업청, 부산상공회의소 등 지자체 내 산업인력수급을 담당하고 있는 주요 행정기관이 참여하였다.

이번 협약식으로 교육 기관에서는 각종 교육과정을 기업에 맞춤형으로 운영, 학교의 취업역량을 강화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결하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해 본다.

## 4. 현대미포조선으로 부터 HMD 품질 인증서를 인증

우리 회사는 3월 15일 현대미포조선으로부터 HMD 품질 인증서를 인증받고 4월 18일, 이를 전달 받았다.

이번 평가에서 우리 회사는 용접사



자격, 검사 합격율, A/S 처리능력 등에서 100%율을 보였으며 특히 품질개선 목표인 10건을 150% 초과하는 15건을 달성하여 5개 등급(A~E)중 최고인 A 등급을 받았다.

우리회사는 매년 현대미포조선을 포함한 전 조선소에서 품질인증 심사를 받아오고 있으며 매년 우수한 성적으로 인증을 받아오고 있다.

## 5. 노동절 기념 행사 '3공장 최광욱 팀장' 국무총리상 수상



4월 29일 구덕 실내체육관에서 거행되었던 "2011년도 노동절 행사"에서 우리 회사 다대 3공장에 근무하는 최광욱 팀장이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최광욱 팀장은 '93년도에 입사하여 18여 년간 근무 해오며 근면, 성실함과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의 일에 임해왔으며 우리 회사가 자체 개발하여 현재 조선업의 표준이 된 여과기(Strainer)와 소음기(Silencer) 제작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동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량으로 회사 발전과 더불어 국내 조선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게 된 최광욱 팀장의 수상소식은 본인은 물론 우리 선보가족 모두의 자랑이며, 우리 모두의 자긍심을 더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 6. ISO1400, OHSAS18001 인증획득



우리 회사는 1998년, 품질보증과 지속 가능성 표준 개발 노력을 인정받아 ISO9001 품질보증체계 인증을 획득한 것에 이어, 10월 7일 ISO14001, OHSAS18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과 환경관리시스템 인증을 각각 획득했다.

ISO14001, OHSAS18001는 품질, 환경관리 시스템의 종합적인 요구사

항에 모두 부합하는 국제표준이다.

이로써 우리 회사는 여러 다국적기업의 이해 관계자들에게 ISO14001, OHSAS18001 인증만이 보증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표준에 부합되는 내부적으로 탄탄한 시스템을 구축했음을 증명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해양플랜트 사업 진출에 대기업적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게 되었으며, 환경영향평가의 국제적 인지도와 더불어 해양 수주에 대한 영향력을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 7. 협력사들과 '동반성장 협약식' 맺어



9월 28일 오후 3시, 본관 회의실에서 협력 회사들과 동반성장 협약식을 맺었으며 이날 협약식에는 최금식 대표이사과 임원진 그리고 각 협력업체의 대표이사 5명이 참석했다.

사회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공동성장 발전"을 위한 실천에 우리 회사가 큰 걸음을 내딛었다.

이번 협약식이 성사됨에 따라 우리 회사는 2011년 말부터 동반 성장 기금을 출연하는 등 각 협력사들을 지원하여 해양플랜트분야의 기반을 더욱 확고히 다질 예정이다.

## 8. 최금식 대표이사 '제42회 금정대상' 수상



9월 24일, 대한산악연맹 부산광역시연맹 주최로 부산광역시 학생교육원에서 열린 '부산산악문화축제'에서 최금식 대표이사가 제 42회 금정대상의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 날 열린 시상식에서 최금식대표이사는 김정실 부산학생산악연맹 고문과 함께 공동으로 수상하였으며, 올해로 42번째를 맞이하는 금정대상은 산악인 가운데 산악운동에 훌륭한 업적을 쌓고 등산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지대한 산악인에게 수여하는 영예로운 상이다.

이날 시상식에는 부산광역시연맹 회장과 부산광역시산악연맹 소속 500여명의 산악인이 참석해 그 자리를 빛냈다.

## 9. 환경문화연합과 MOU체결

"환경과 예술, 문화발전에 한걸음 도약"발판 마련



선보공업(주)과 환경문화연합(UEC)은 10월 4일 오후 5시 선보공업 주회관에서 '건강한 환경과 예술, 문화메세나를 위한 MOU협약'을 체결하고 협력강화를 약속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선보공업의 최상식 부사장과 서재욱 재무인사, 환경문화연합의 이유상 대표와 각 관련 임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 체결에 따라 환경문화연합은 올해 말부터 문화·예술적 협력과 지원을 통해 선보기업이 향후 향토 문화기업으로 자리를 더욱 굳건히 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할 예정이며 두 기업은 앞으로 선진 환경예술 프로그램과 지역문화운동을 함께 진행하는 등 지역공동체와 주민들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 10. '가족친화 인증기업'으로 재선정

여성가족부로부터 갱신판 수여



2008년 중소기업 최초로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받은 우리 회사는 11월 22일 여성가족부 주관, 가족친화 인증기업으로 재선정되어 인증 갱신판을 수여받았다.

가족친화인증제는 일과 가정의 조화로운 균형을 통해 직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기업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도입, 운영하는 기업을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이다.

3년마다 전반적인 가족친화 행사지원 및 정책, 직원만족도 등의 결과에 대한 심사를 거쳐 갱신여부를 결정하는데 우리 회사는 탄력적 근무제 실시와 자녀 출산, 양육 및 교육 지원, 부양가족 지원, 가족관계 증진제도 등의 시행에 있어 전반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아 재선정되는 영예를 얻었다.

그중에서도 탄력적 근무제도와 직원들의 다양한 동아리 활동지원이 재선정 사유의 큰 비중을 차지했다.

# 2011 주요행사

## 2월 정보보안 컨설팅 및 교육 실시 "우리의 소중한 정보를 지키기 위한 노력"



2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중소기업 기술보호상담 전문가 2명을 초빙하여 보안 컨설팅 및 대표자, 임원 보안 대화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보안교육을 실시 하였다.

이번 컨설팅의 결과물로 보안규정 재정비, 보안 각서 및 영업 비밀 각서 취합, 각종 문서의 등급 재정비 등 보안 경영 체계 실천 매뉴얼을 새롭게 하여 정보보호와 정보유출방지노력, 투자확대를 통하여 첨단기술과 핵심인력을 중점적으로 보호하고 관리를 지속 해 나갈 것이다.

이번 컨설팅 외에도 신입 사원 및 재직자를 대상으로 보안 각서를 매년 갱신하여 징구하고 있으며, 이번 컨설팅을 계기로 보다 완벽한 보안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해 나갈 것이다.

## 3월 군산 공장 본격 가동

최대 부지의 우리 회사 행운의 일곱번째 공장/ 군산 조선포스 간의 시너지 효과 기대



우리 회사의 일곱번째 공장인 군산공장의 군산공장은 2010년 10월 착공하여 11월부터 본격 가동이 이루어졌다. 전체 3만9천㎡(1만2천평) 부지에 준공된 군산 공장은 주로 선당과 메인데크를 생산하며, 연 매출 11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후 M/A와 언더그룹 생산에 더욱 박차를 가하며 지난 1월 말부터 실제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군산 공장은 앞으로 무한한 발전가능성을 가진 품질 좋은 조선기자재의 유닛업체로 이름을 알릴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헌혈로 만드는 사랑 나눔 문화

3월 16일 본사 및 4개 공장 직원 60여명이 헌혈로 따뜻한 사랑 나눔에 동참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된 이번 헌혈 캠페인은 혈액 수급의 어려움에 도움이 되고자 이번 캠페인을 실시 하였다. 헌혈을 하고자 한 직원은 많았지만 약 복용, 건강 상의 이유로 부

적격자가 다수 발생하여 실제 지원의 20%밖에 참여할 수 없었지만 많은 사람들의 헌혈에 대한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다음에는 더 많은 사랑 나눔을 기약해 보는 바이다.

## 전사 원가절감을 위한 워크샵 열어



최근 조선업계의 불황과 수주의 하락 등으로 인해 날로 어려워지는 경영 환경을 돌파하기 위해 우리 회사 전 임원 및 팀장 50여명이 3월 12~13일 용당에 소재한 부산인력개발원에서 1박2일의 일정으로 워크샵을 실시했다.

이날의 워크샵은 전사가 반드시 달성해야 할 목표인 원가절감방안에 대한 방법 도출에 관한 것으로 진행됐다.

각 부서는 △예산 물량과 실행 물량의 차이 △STOC 자재비에 대한 매각화 개념 부족 △포괄적으로 분석된 아이템 △자재비 인상 가능성 등을 문제의 원인으로 판단하고 VE 원가계산 재조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매달 7일 전 부서의 정확한 실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원가절감 실적을 발표하기로 결정되었으며, VE TFT를 구성해 좀 더 심도 있고 구체적인 방법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 가족초청간담회 실시

신입 부서원 가족들 초청해 '소통의 장' 마련



우리 회사는 가족 친화사업의 일환으로 신입 부서원 및 신혼 가족들을 초청해 최금식 대표이사를 비롯한 경영진과 한 가족처럼 상호 교감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지난 간담회와 비교해 연령대와 구성원이 보다 다양해진 이번 가족초청간담회는 직원 및 가족 약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서원이 일하는 모습과 회사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 사무실 및 현장 순회 등을 통해 그 동안 소원했던 가족 상호간의 이해를 통한 친밀감 증대와 회사와 가족 간의 유대관계 강화 도모를 위해 마련됐다.

회사소개, 대표이사 인사말, 단체 사진 촬영 그리고 직원들이 근무 하고 있는 사무실 및 현장 순회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종전의 외부에서 식사를 가졌던 것과는 다르게 직원들의 실제

회사 생활을 간접 체험하기위해 식사 장소를 금번 신축한 회사 식당으로 옮겨, 가족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이끌어 냈다.

이처럼 우리 회사는 가족 체육대회, 가족 마라톤 등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가족친화기업 활동"을 지속적으로 경주해 나갈 예정이다.

## 4월 전사 VE TFT 2차 성과발표회 개최

조선업계 불황 속 생존을 위한 원가 절감을 위해 지난달 출범한 제품별 VE TFT 활동에 따른 2차 성과 발표회를 상임고문 및 임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하였다.

이번 발표회는 VE TFT 팀의 활약으로 최근 지속되는 조선 경기불황 속에서 안정적인 원가경쟁력 확보로 원가 절감을 현실화 할 것에 기대를 모으고 있으며 불황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 해본다.

## 전사 체육대회 개최



올해로 6회를 맞은 전사체육대회가 4월 23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다대 중학교에서 상호회 주최로 선보공업이 후원한 2011년 전사 체육대회를 개최 되었다.

많은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최금식 대표이사의 개회식을 시작으로 메인 경기인 족구, 피구 및 축구 경기와 단체 경기인 줄다리기, 단체 계주 등의 경기로 구성 되었으며, 어르신들을 위한 윗놀이와 여성을 위한 링 던지기 그리고 자녀들을 위한 그림 그리기로 진행 되었다.

특히 올해는 가족 참가자가 배 이상 늘어 직원들만을 위한 행사가 아닌 직원 가족이 공유할 수 있는 행사로 거듭난 한해가 되었다.

## 5월 '2011부산국제하프마라톤 대회' 참가



5월 22일 오전 9시 다대포해수욕장에서 열린 '부산 국제하프마라톤 대회'에 총 50여 명의 인원이 참가했다. 매년 2회씩 국제신문에서 주최하는 마라톤에 정기적으로 참가하고 있는 우리 회사는 올해에도 참여해 업무로 인

해 피로해진 몸 상태를 점검하고 동료들과 함께 달리며 직원들의 건강증진과 대화를 통한 단합심을 다지는 기회를 가졌다.

## 6월 3공장 업무효율과 비용절감 위해 부품 교체 실시 고무 가스켓(Rubber Gasket)에서 오링(O-ring)으로 교체

제 3공장은 스트레이나 제품의 누수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존의 고무 가스켓(Rubber Gasket) 제품을 오링(O-ring)으로 전면 교체기로 했다.

이로 인해 기존 고무 가스켓의 한계를 해결하면서 누수현상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오링으로 교체 시 부식과 오염, 기능저하를 야기 시키는 누수현상을 최대한 제거할 수 있고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효율성 증대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7월 창립 제25주년, 모두가 선보의 주인이 되어야 할 때

- 명품모듈생산과 사업다각화를 필두로 한 제3의 창업 선언
- 우수 사원 표창과 연극 단체관람도 이어져



7월 1일 본사는 창립기념일을 맞아 옥상 교육장에서 "제25주년 창립기념일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에는 최금식 대표이사를 비롯해 외주소장, 임직원 등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 되었으며, 기념일 행사와 더불어 제 3의 창업 정신을 통하여 선보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화합과 단결의 의지를 다졌다. 한편 우리 회사는 창립기념일을 맞아 회사 발전에 공헌한 우수사원을 표창하였으며, 이외에도 대외적으로 수상한 부산상공회의소장상, 부산울산 중소기업청장상, 사하구청장상을 전달하는 전달식도 함께 열었다.



# 2011 주요행사

## 8월 제3의 창업을 위한 하반기 수정 사업계획 발표

제25주년 창립기념일을 맞은 우리 회사는 제3의 창업을 선언, 날로 격화하는 조선경기 불황속에서 승자가 되기 위한 실천에 나섰다. 이에 7월말 옥상교육장에서 제 3의 창업을 위한 하반기 수정 사업계획을 발표하여 제 3의 창업에 대한 의지를 견고히 했다. 이번 하반기 수정 사업계획 발표를 통해 본사는 연초에 계획한 경영목표를 달성하는데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만루홈런으로 스트레스까지 한방에! 야구단체관람



직원들의 복지 향상과 단합심을 키우기 위해 일과 후 여러 문화적 이벤트를 실행하고 있는 가운데 그 일환으로 8월 21일 일요일 오후 5시 롯데와 SK경기를 단체로 관람하였다.

우리 회사는 가족친화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이벤트를 실천해 오고 있으며, 이러한 이벤트는 직원들이 함께 모여 애사심을 다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직원들의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어진다.

## 최금식 선보공업(주)대표-사하문 화원 초대 원장 취임



사하구 지역문화예술의 메카 역할을 하게 될 사하문화원이 8월 31일 오후 6시 을숙도문화회관에서 창립총회를 가지며 첫발을 내디뎠다.

사단법인 형태의 사하문화원은 시 구비 1억9천여만원, 임원출연금과 회원회비 1억4천만원등 총 3억3천여만원으로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중장기 장기 비전계획을 수립, 추진하게 된다. 이날 초대 사하문화원장에는 최금식 사하구기업발전협의회 회장이 선임됐다. 이번 최금식 대표이사의 사하문화원 원장취임으로 직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 지원에 힘써 왔던 우리 회사가 향후 지역구의 문화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 할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9월 PADO마인드 경영교육 실시

9월 17일·18일·24일·25일에 걸쳐 흥

문기 조직경영전문가를 초빙하여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PADO 마인드 경영교육을 실시하였다. “나와 조직에 변화의 물결을 만드는 PADO과정”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교육은 최금식 대표와 전임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총 17시간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중간관리자에 대한 오너십교육과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개인의 행동분석을 내용으로 진행되었으며 관리자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한 강의·동영상 등과 함께 개별 설문지를 작성하여 7개의 조를 구성, 그 내용을 토대로 열띤 토론을 펼쳤다.



## 협력사들과 동반성장 협약식 맺어

사회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공동성장 발전”을 위한 실천에 우리 회사가 큰 걸음을 내딛고 있다. 지난 9월 28일 오후 3시, 우리 회사는 본관 회의실에서 협력 회사들과 동반성장 협약을 맺었다. 협약식에는 최금식대표 이사과 임원들 그리고 각 협력업체의 대표이사 5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식이 성사됨에 따라 올해 말부터 동반성장 기금을 출연하는 등 각 협력사들을 지원하여 해양플랜트분야의 기반을 더욱 확고히 다질 예정이다.

## 10월 ISO1400, OHSAS18001 인증획득

1998년도 품질보증과 지속가능성 표준 개발 노력을 인정받아 ISO9001 품질보증체제 인증을 획득한 것에 이어 2011년 10월 7일, ISO14001, OHSAS18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과 환경관리시스템 인증을 각각 획득했다. 이번 ISO인증을 계기로 해양플랜트 선박의 전 공정에 대해 품질과 환경의 객관적인 데이터 관리가 가능해졌으며, 해외수주에도 유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 사랑나눔 헌혈행사 2년째 헌혈로 훈훈한 '이웃사랑' 실천

우리 회사는 10월 20~21일, 올해로 4회째 진행된 ‘사랑 나눔 헌혈행사’에서 대공장을 비롯하여 구평공장 직원 70여명이 참석하여 훈훈한 이웃사랑을 실천하였다. 우리 회사는 ‘헌혈을 통한 건강한 사회를 건설하자’는 취지에서 2010년부터 매년 두 차례씩 대한적십자사의 협조를 받아 사내 주차장에서 출장 헌혈방식으로 헌혈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상·하반기로 나눠 정기적으로 ‘사랑나눔 헌혈행사’를 진행하고, 헌혈캠페인 포스터를 사내에 부착하는 등 직원들의 관심을 최대한 고취시킬 예정이다. 그 외 연말연시를 맞아 사회적 기여도를 높이기 위

한 다양한 행사를 펼쳐나갈 계획이다.

## ASICA경영교육 실시

10월 28, 29일 양일간 조직경영전문가인 장철화 경영 연구소장을 초빙하여 “글로벌 경쟁력향상의 핵심인재 육성을 위한 낭비 제거의 창조적 혁신”을 주제로 하여 생산직 임직원을 대상으로 ASICA경영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총 17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이전의 ‘PADO’라는 MIND 교육과는 달리 현장에서 일하는 임직원들을 위주로 생산 현장 내에서 낭비요소를 찾고 그에 대한 해결방법을 모색하는데 시간을 할애하였다.

앞으로도 관리직 위주의 교육뿐만 아니라 현장을 담당하고 있는 생산직 중심의 경영교육도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다가오는 연말 교육에는 더욱 알찬 강의와 프로그램을 준비해 회사발전과 경쟁력향상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 할 것으로 보인다.

## SHWE SKID 성공적납품



우리 회사의 구평 하이텍작업장에서 6월초부터 제작에 들어간 SHWE SKID는 올해 말까지 납품될 예정인 MEG 6세트, PWT 1세트 중 MEG 2세트가 선 납품 된 것이다.

이번의 성공적인 납품은 설계 경험이 풍부한 김건우 차장의 지도 편달 아래 고품질 제품을 생산한 생산부서 및 적합한 시기에 맞춰 자재조달에 힘써준 구매부 등 모든 구성원의 노고의 산물이다. 이를 계기로 영업, 설계, 구매, 생산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보가 충분히 습득되어 설계 능력향상으로 향후 회사 발전의 교두보가 된다는 측면에서 각별한 의미가 있다.

## 11월 가족간담회 개최 '가족친화경영'의 모범을 보여



우리 회사는 11월 12일(토) 다대 본 공장 4층 회의장에서 임직원 부모 및 가족 30여명을 초청하여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하고 가족과 함께 즐겁게 일하는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가족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최금식 대표의 인사말에 이어 최상식 부사장과 의 간담회에서 임직원들과 가족들은 많은 의견을 교환, 수렴하는 시간을 가지며 가족의 사랑을 확인하는 뜻깊은 하루

를 보냈다.

## 새로운 도전! 해양사업팀 결성 사업다각화 발판 마련



우리 회사는 조선블록 중심의 사업이 하향곡선을 나타남에 따라 해양플랜트 시장의 영역확대, 사업다각화를 모색하기 위해 감천공장에 해양사업팀을 결성하고, 본격적인 해양부문 개척에 나서기로 했다. 해양사업팀은 대기업 해양플랜트 33년 경력의 진병석 전무, 장두생 상무를 주축으로 임,직원 30여명으로 구성되어 전공 분야별로 역할을 분담해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양분야의 생산, 설계 및 엔지니어링에 전념할 것이다.

우리 회사는 2010년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2010 국가생산성 대상'을 받을 정도로 경쟁력 있는 고품질의 제품을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 해 왔으며, 조선 수주의 감소에 따라 우수한 설계력과 생산력을 원동력으로 삼아 해양설계의 자립을 목표로 매진 하여, '선보'하면 해양플랜트 기업이라 인식될 수 있도록 설계중심의 기술에 중점을 두고 수정, 보완 해 나갈 것이다.

## 12월 아듀 2011년! 그린등반대회 및 송년회 개최



우리 회사는 12월 10일, 승학산에서 2011년 송년회의 일환으로 자연 정화 활동을 겸한 ‘제2회 선보가족 그린등반대회’를 실시하였다. 이날 행사는 친환경가족실천을 주제로 전 사원 및 임직원들과 가족들이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짐과 동시에 승학산 주변 환경 정리 및 2011년 한 해를 잘 마무리 한 직원들의 화합을 더욱 굳건히 하기위해 마련되었다. 최금식 대표와 함께 승학산 아래에 보이는 감천부지공장을 배경으로 단체사진 촬영 후 행사장소 일대와 등산로 일원 등에서 광범위한 정화활동을 펼쳤으며, 하산 후 각 공장별로 송년회를 가지는 것으로 이날 행사를 마무리 하였다.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된 '선보가족 그린등반대회'는 친환경가족실천행사의 일환으로 앞으로도 계속 실시될 예정이며 2012년에는 가족 친화기업 인증사업장으로서 더욱 발전된 행사가 마련될 계획이다.

# 2011 칭찬릴레이 열전 !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칭찬은 선보를 더욱 굳건하게 만든다! 2011년 11명의 칭찬받아 마땅한 선보의 일꾼이 칭찬릴레이주자로 선정됐다. 선보의 숨은 일꾼으로, 분위기 메이커로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선보 칭찬릴레이 수장자를 다시 만나보자.



### 2월 한동근 반장

보기에는 무뎠는데 보이지만 누구보다 선보를 향한 열정적인 마음을 지닌 한동근 반장은 선보에 입사한 지 6년차

로 구평 공장의 배관, 조립팀의 반장을 맡고 있다. 항상 '한번 더 움직인다.'라는 생각으로 일의 성과는 물론이고 만약의 사태에도 재빠르게 대비할 수 있는 마음가짐으로 작업에 임하고 있다는 한동근 반장의 앞으로를 기대해 본다.



### 3월 박현철 팀장

선보공업의 탁월한 살림꾼 박현철 팀장. 그는 선보에서 근무한지 3년차

로 주로 현장 지원을 맡아 모든 자재나 안전소모품을 담당하고 있다. 가끔 다른 팀원들과 의견 조율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사고 없이 현장이 잘 운영되어 나가는 모습을 보면 뿌듯함이 느껴진다고 말한다. 조선경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빨리 회복되어 정상 궤도로 올라가기를 바라며 무엇보다 앞으로도 선보가족 모두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전했다.



### 4월 영암공장 김효희 사원

책임감이 강한 영암공장의 김효희 사원은 선보에 입사한지 2년반정도

되었다. 그는 선보에서 자재품목물량을 확인하고 입고를 잡으며 현장에 자재를 공급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언제나 "맡은 바 임무는 끝까지 책임을 다하자!"라는 마음가짐으로 항상 본인이 맡은 업무는 무슨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해낼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그에게서 선보의 힘찬 미래를 기대해 본다.



### 5월 다대 1공장 장세열 사원

다대 1공장에서 배관 조립을 담당하고 있는 장세열 사원은

올해로 5년차에 접어들었다. 그가 맡은 배관 조립 업무 같은 경우 무엇보다 팀웍이 중요하기에 작업장 분위기를 밝게 만들려고 노력 한다는 그는 일을 함에 있어 무엇보다 책임감을 갖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다보면 어떤 일이라도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는 것 같다고 한다. 끝으로 가장으로서 행복한 가정 을 이끌어 나갈 책임감과 더불어 업무적으로는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는 그의 행복한 앞날을 기대해 본다.



### 6월 다대2공장 전철민 팀장

2003년 1월에 입사하여 올해로 8년 차로 접어든 전철민 팀장은 다대2공장에서 자재지원팀 팀장을 맡아 일하고 있다.

'약속을 잘 지키자,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 최대한 이해하자' 등의 잔소리로 팀원들에게 피곤한 팀장이 아닐까 하는 마음을 내비치는 그는 자재공급 시기의 편차가 있어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지만 서로 이해하고 웃으면서 즐겁게 일하려고 노력한다고 한다.

그는 가족은 물론, 팀원들도 아프지 않고 항상 건강했으면 하는 바람을 전했다. 앞으로 소신있게 자신의 일을 충실히 해내가는 그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



### 7월 다대3공장 강동주 팀장

다대 3공장에서 용접을 담당하고 있는 강동주 팀장은 입사 19년차의 베테랑이다. 묵묵히 오랜 기간 성실히 일해 온 그는 함께 일하는 동료, 후배 등 선보 가족들에게 항상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한다.

오랜 기간 일하다 보니 세월이 가져다 준 노하우가 생겨 이제는 힘들지 않게 일하고 있지만 예전과는 달리 체력이 부족한 것 같다고 말하는 강동주 팀장. 하지만 아직까지는 별 문제 없다며 "항상 웃으며 살아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일을 할 때도 먼저 웃으면서 즐겁게 일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한다"고 말하는 그에게서 긍정적으로 밝게 빛나는 선보의 미래를 느낄 수 있었다.



### 8월 구평공장 김태형 사원

항상 묵묵히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구평공장의 김태형 사원은 선보에 입사한지 올해로 2년차로 구평공장에서 용접을 담당하고 있다.

일을 할 때 항상 완벽하게 일을 하려 노력하며 힘들더라도 끝까지 마무리하여 완성된 제품이 납품될 때, 모든 선보인이 그러하듯이 본인 역시 뿌듯함을 느낀다고 한다.

사랑하는 어머니와 함께 한동근 반장님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 용접일을 함에 있어 더욱 더 숙련된 기술을 쌓도록 노력하고 건강 관리에 신경 써 최선을 다하는 선보의 일꾼이 되리라 믿음을 하게 말하는 그에게서 선보의 희망찬 미래를 그려본다.



### 9월 영도공장 이재근 단장

영도공장에서 용접을 담당하고 있는 이재근 단장은 선보에 입사한 지 3년차로 항상 즐기면서, 웃으면서 일하자는 마음가짐으로 작업에 임하고 있다.

자기직업을 좋아해야 행복해 질 수 있다는 그는 지나치게 일 하는 것 보다 신념을 가지고 집중해서 일하려고 한다고 한다.

지금 이 순간을 즐기면서 일에 매진하고 싶다고 하는 이재근 단장은 자전거 타는 것과 사진(필름카메라)찍는 것에도 취미가 있다며 앞으로 시간을 내어 동호회에 가입해 모임에도 참석하고 선보인들과 함께 출사도 나가 좋은 작품들을 남겨 보고 싶다고 전했다. 즐겁고 행복하게 일 하는 그를 통해 우리가 잊고 있던 행복의 조건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다.



### 10월 목포 선보하이텍 송인환 계장

목포 선보하이텍 영암공장에서 생산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송인환 계장은 선보인

이 된 지 4년이 되었다고 한다. 그는 "남보다 먼저 행동으로 옮기자"라는 신념을 가지고 본인이 맡은 업무는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며 남보다 앞서 생각하려고 노력한다고 전했다.

요즘 모든 직원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이럴 때 일수록 함께 힘을 모아서 어려움을 헤쳐 나갔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하며 앞으로 웃을 일이 자주 생겼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 11월 다대공장 이병근 주임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 쑥스럽다며 미소를 지은 다대 공장 배관 1관 이병근 주임은 현재 배관의 티그용접을 맡고 있으며 불량 0%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는 선보의 조직직원으로서 자부심과 기대가 큰 만큼 본인 스스로도 더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느끼며, 아직도 배워야 할 것이 많다고 생각해 끝없는 탐구정신으로 일에 전념하고 싶다고 전했다.

삶의 원동력인 아내와 두 딸을 위해 서라도 다치지 않아야겠다고 다짐하며 함께 일을 하는 동료들도 항상 이를 생각하고 스스로 건강을 챙겼으면 좋겠다는 그의 한마디에서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 12월 다대공장 서원수 주임

집채만 한 크기의 유닛제품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지게차로 멋지게 운반하는

입사 6년차의 다대2공장 자재지원 서원수 주임. 제품을 트럭으로 싣고 오면 곧바로 현장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상하차 준비를 맡아 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자재를 체크하여 이를 접수해 문제가 있는 제품들은 바로 조치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

그는 '일을 함에 있어 꾸준하게 노력하는 자가 성공한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3살과 1살 된 두 아들을 보며 힘든 일도 깨끗하게 헤쳐 나가고 있다고 했다. 끝으로 "선보인 모두가 힘들고 고단해도 서로 위해 웃으면서 일에 임했으면 좋겠으며, 날씨가 추워지는데 동료 모두 스스로의 건강을 잘 챙겼으면 좋겠다"는 말을 전했다.

## Run SUNBO Run 축하합니다

### 생일을 축하합니다

다대공장	
재무	양운모 (1/ 1) 김숙정 (1/30)
설계부	고상현 (12/23), 김현진 (1/ 2) 강영중 (1/ 7), 이철훈 (1/27)
개발설계2팀	유진아 (1/18)
품질	이현수 (12/9)
생산팀	김여송 (12/ 8), 김정수 (1/ 2) 이덕수 (1/11), 김동선 (1/13) 구태현 (1/15), 김태영 (1/20) 이동현 (1/28)
1 공장	조소희 (12/15), 이창면 (1/ 5) 김정민 (1/ 9), 박수빈 (1/ 9)
2 공장	김종민 (12/15), 정상규 (12/22) 서원수 (1/16), 조경선 (1/18)
구평공장	
생산관리	윤용남 (1/ 7)
자재운영	박춘복 (1/26)
Q.A	김현우 (1/ 9)
생산팀	이용석 (1/ 1), 권혁인 (1/ 2) 박경철 (1/ 5), 정종원 (1/ 5) 한동근 (1/ 6), 송정호 (1/20) 손종필 (1/20), 이성일 (1/20) 김영균 (1/23), 송기열 (1/25)

감천공장	
해양PM	아미트 (1/ 7)
해양품질	박상계 (1/18)
입사기념일	
다대공장	
기술영업	김혜림 (1/27)
설계부	김현진 (1/ 3), 김황중 (1/13), 김규철 (1/24), 정기홍 (1/24)
1공장	장형구 (1/ 2), 배희진 (1/2)
2공장	한승진 (1/27), 이창호 (1/28) 전철민 (1/ 1)